

후 “재난 상황에서 음주가무 즐기는 정신나간 공직자들, 아주 엄히 단속하길”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 우수사례는 발굴해 모범되도록 조치”
“폭우 대응,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 범부처 종합대책 강구해달라”
“소비쿠폰 없을 때도 물가 자꾸 올라... 엄정하게 관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뒤 실종자 수색 및 피해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아우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보도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시의원들과 음주 회식 자리를 가졌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번 재난 과정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참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폭우로 산사태가 벌어진 경남 산청군 피해 상황을 전할 살고 온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눈 앞을 떠

나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 해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를 보면서 기존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게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특히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며 온열 환자 사망과 식중독 발생 최소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는 이날 정부에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오르는데, 물가 관리에도 신속·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소비쿠폰 지급 목적이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며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체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신다”며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9명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했다.

신임 장관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순으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우리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계엄 옹호’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 사퇴... 강선우는 임명 수순

‘계엄옹호·강제동원 부정’에 여권 내 사퇴 요구 커져
“李정부 정치철학 이해하는 보수계 인사로 임명”

‘보좌진 감질’ 의혹 강선우엔 “반복 없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후임자도 보수계 인사 가운데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당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퇴 배경에 대해 “국민통

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 추천으로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이는 국

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항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일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문을 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던 점이 재조명되면서 비토 여론이 확산했다. 그는 2018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애초 임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여권 안팎에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강 비서관의 거취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 사퇴와 관련해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

를 넘어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인론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한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 문제가 발견됐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인사 검증 대상에 저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 그 과정은 구구절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과로 쓰러질 정도로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을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

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보좌진 감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재송부 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기류다.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반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